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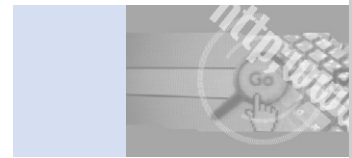


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

金 東 煥 (研究委員, 3705-6360)

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수반되나, 정부는 향후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- 현재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생산구조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지연되고 있음.
 -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경제발전 패턴과 유사하게 1차산업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.
 - 서비스산업의 경우 금융, 교육부문 등을 중심으로 확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중이나 발전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.
 - 제조업 비중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지만,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생산구조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지연됨을 알 수 있음.
- 한편 취업구조 측면에서는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조업-서비스산업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-수출간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음.
 - 생산측면에서는 탈공업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비중은 9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서비스산업 취업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취업구조상 탈공업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.
 - 주로 교역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수출의 호조와 함께 고성장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내수침체로 인해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, 수출주도의 제조업은 고생산성-인력부족,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내수산업은 저생산성-과잉취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양극화로 치닫게 되는 경향을 보임.
- 향후 우리 경제는 생산구조상 탈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과 유사한 모습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.
 - 중장기적으로 무역흑자가 지속되기 어렵고 내수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시점에 생산구조 측면에서도 탈공업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.



*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교역비중이 높은데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탈공업화가 지연되고 있지만,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및 아웃소싱 추세가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탈공업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즉,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고 농림어업과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역시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형으로 변모될 것임.

*제조업의 경우 첨단 지식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유지할 것이나 상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 및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.

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과 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수반됨.

- 생산구조상 탈공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업정책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함.

*또한 서비스산업이 저생산성-과잉취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의 격차(양극화)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책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인력개발, 제조업으로의 전직(outplacement)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.

- 한편 이미 서비스산업 취업인구가 많은데다 향후 산업구조도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전망은 조만간 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시장친화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함.

- 하지만 최근 들어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설비투자 동향 등은 위와 같은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*고도성장이 지속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0~40%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크게 감소하였음.

*이는 산업정책의 유효성 저하,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기업들의 과도한 위험회피, 성장동력 소진으로 인한 장기불황 가능성 등 시장실패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.

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- 향후에는 고도성장시대와 달리 신기술·인력·에너지 개발, 환경보존, 영세·소기업 보호, 지역균형발전, 중소기업육성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-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성장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트렌드(mega-trend)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.

*주요 메가트렌드란 인구고령화,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전망, 환경 및 천연자원문제, IT·BT·NT·신소재기술의 융합 및 학제간 통합,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등을 의미함.